

# 2017 준비 끝



## 310명 한 자리에

3월 27일(월) '금속노조 경기지역 공동확대간부수련회'가 열렸다. 경기지부, 기업지부 확대간부 310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하루를 함께 보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세와 지부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촛불이 불러온 봄을 노동시민의 봄으로 만들기 위한 노조의 변화를 함께 고민했다.

지부 집단교섭사업장들은 '확대간부 수련회 연 1회(8시간) 유급' 조항을 활용해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올 해는 기존의 상집수련회를 대의원까지 포함한 확대간부수련회로 확대했다. 대각선 사업장도 활동시간, 교육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참가했다. 신생사업장 간부들은 "많이 모인 것 자체가 좋았다."고 한다. "310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하루종일 흐트러짐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조직력이고 경기지부의 힘"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지부 사무장들은 프로그램별로 꼼꼼하게 평가했다. "토론시간과 사업장 간 교류시간을 늘리자, 상집/대의원 각각의 역할과 고민에 맞게 프로그램을 분리/구성하자, 내용적 준비에 신경을 써서 매년 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 닥치는대로 들었더니

지부는 17년 초부터 지부와 각 사업장의 활동에서 '지난 5년 간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과 성찰이 필요한 아쉬운 순간'에 관해 간부, 조합원들에게 닥치는대로 들었다. 여러 회의와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두 정리해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공유했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지부중심의 집중 투쟁으로 에스제이엠, 두원 투쟁에서 승리한 것, 단결불패 정신으로 투쟁 사업장/신생노조/비정규직 지원에 몰방한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세월호 투쟁과 탄핵촛불 등 사회적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것도 큰 자부심이었다. 한편 성찰해야 할 것으로는 '오스람 해체, 대창 투쟁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것' 등 **신생노조에 몰방한 만큼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답했다.** 또 **관성적인 집회와 투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뒷면 참조)

'닥치는대로 들었습니다'의 전체 내용은 경기지부가 지키고 키워가야 할 좋은 정신, 성찰하고 변화해 가야 할 점들을 교육안이나 책자로 종합해 전체 조합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 2017년 집단교섭 시작

4월 13일(목)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7년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 해는 사업장 대부분이 임금교섭만 진행한다. 지부 집단교섭은 요구안을 최소화하고, 향후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을 늘리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집단교섭 요구로는 1) **기본급 월 154,883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2) **공민권 행사**(국회, 법원, 노동위, 수사기관, 기타공공기관에 출두할 때, 보궐선거 등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초기 진단 시 노사안전담당자 동행, 노조 참여 하에 재해요인 조사 및 노조 담당자 서명 의무화, 업무상 재해 판정에 회사의 적극협조) 등 세 가지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동시에 말레동현화성, 코리아에프티, 대창 등 신생사업장 간부, 조합원들과 산별교섭의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는 간담회, 교육을 5월 중 진행한다.

지부 조직력 강화, 신생사업장과 투쟁사업장 엄호, 노조 확대 등 단결불패, 협력불패, 권리확산의 삼위일체 활동을 위한 모든 논의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시민의 봄을 앞당기는 17년이 시작된다.



# 삼화지회 출생신고

안성에 또 새 식구가 생겼다. 두원, 코리아에프티, 지큐피 앤씨에 이어 안성의 네 번째 별이다. 지난 2월 27일 신생 삼화지회가 경기지부 소속 지회로 편제됐다. 삼화는 안성에서 담배필터를 생산하는 40년 가까이 된 회사다. 전체 직원 80여 명 중 73명이 가입대상인데, 71명이 가입했다. 그 중 39명이 여성조합원이다.

그 동안 회사는 관리자 개인사에 노동자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 지경까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덧붙여 겨우 최저임금을 맞춰주었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 행복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해 1월 노조를 만들었다. 처음에 기업노조를 만들었다가 바로 한계를 느끼고 금속노조를 찾아왔다. 비밀리에 기존에 있던 휴면노조를 해산시키고, 기업노조 상태에서 대표노조가 된 후 금속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는 작전을 2개월 사이에 성공시켰다. 조직전환 투표는 100% 찬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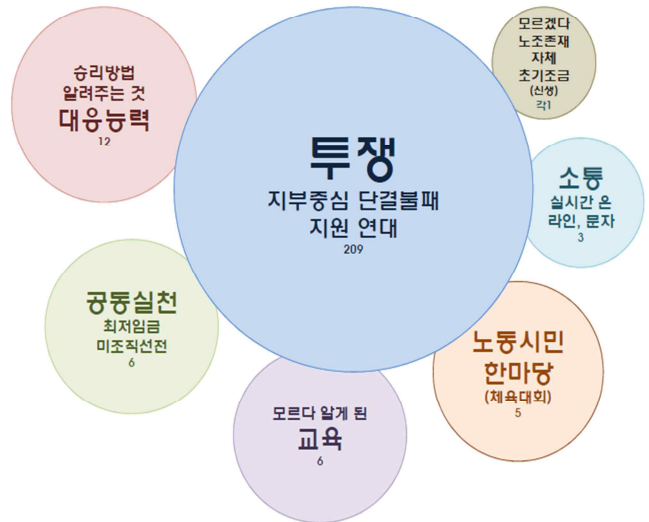
주 2회 교섭과 조합원 교육 등 바쁜 한 달을 지나 3월 28일 빠른 의견일치에 이르렀다. 낮은 기본급에 수당붙여 최저임금 맞춰주던 체계를 바꾸는 게 핵심쟁점이었다. 4가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전체 임금계산에 반영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손보고,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했다. 조합활동 등 가장 중요한 사항들도 기본을 다졌고, 집단교섭 참가조항까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4일 조합원 찬반투표(95% 찬성), 5일 조인식을 거쳐 노조로서 출생신고를 마쳤다. 지회는 “파업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쟁취해서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조합원 교육시간을 잘 활용해 단결하고, 여러 투쟁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8일 경기노동자총결기에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했다. 조금 추웠지만 뜻 깊은 자리였다는 소감도 남겼다.



△ 3.18 삼화지회 단합대회에 지부 각 사업장이 함께 참석해 즐거운 결의의 시간을 보냈다.

# 닥치는대로 들었습니다 결과 종합

## 이럴 때 자부심 쑥쑥



## 이런 투쟁에 자부심 팍팍



## 이런 것이 아쉽다

